

보서

준비

I

# 00 | 서문

이 콘텐츠를 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내 자체적으로 연구한 국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가끔씩 들어오는 국어 과외로 쓸 자료들도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왜 국어를 연구하게 되었는가?

내 작문방법상 긴 글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런 개인적 경험은 내키는 사람만 읽어주길 바란다

먼저 학교에서 국어 수업이 전혀 수능 국어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처음에는 1~2등급은 유지했는데, 오히려 당시 유행하는 인강을 들었는데 오히려 점수가 떨어졌다....

그 당시 들었던 인강은 문제순서를 설정하고 문제에 기반하여 지문을 부분적으로 읽는, 그런 식의 수업인데,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짜증이 났고, 국어 관련해서는 아예 인강을 안 보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나 그런 거 전혀 다 안 듣고 도움도 안 되는 그땐 국어 수업들이 정말 혐오스러워서 앞자리에 앉아서, 국어수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책을 대놓고 펴서 공부했고, 그 덕이 선생이랑 싸웠던 기억도 있다.

군대를 가고도 국어 강사나 국어 선생들의 혐오는 굉장히 심했고, 그 덕에 지속적으로 수능 국어 점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 같다. 물론 약간은 고생도 했지만, 참 운이 좋게도 M사의 논리학 관련하여 수업을 여시던 L 강사님이 있으셨고, 논리학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면서 생각에 대한 연구와 국어와의 상관관계를 알게 되었다.

이런 방향성을 알게 되면서, 내 나름대로의 연구는 꽤나 알찼다. 원래 다니던 대학으로 돌아가서 철학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해질이나 가능세계(서울해석이라고 불리는 양자철학)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에게 철학에 필요한 논리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이런 논리학을 기반으로 퍼스 사마의 기호학이라든지, 김영정 교수님의 기호 이론도 좀 맛을 보게 되었고, 꽤나 국어에 대한 자신이 붙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때 과외 했던 친구의 점수를 올려주게 되었다.

그 때 깨달은 국어 점수 향상에 필요한 제 1원칙은

: 논리적 사고가 발달해야 한다.

이며, 이런 약간의 성공을 맛본 나는 심각한 논리 덕후가 되었다. 그래서 철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논리학과 엄밀한 기호가 필수라고 생각했고, 언어적 표현이 갖고 있는 뉘앙스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 참 교수님이신, 철학을 전공하신 P교수님의 '교육학 개론'을 들으면서, 이런 논리적이면서도 철학적 엄밀함의 한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발생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논증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인간은 감정적인 판단을 하며, 감정 및 뉘앙스 없이 인간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이다. 너무 당연하지만, 이를 인식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때 가르치던 학생이 논리만 가르치는 방식으로 성적이 굉장히 둔하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 방법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뭔가 이런 부족한 무언가를 채워줄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 때의 학생이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것은

: 개념만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며, 나는 이를 개념과 실제 풀이간의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논리 뿐 아니라 어떤 뉘앙스, 혹은 감정적인 것까지 생각하면서, 나와 학생의 차이에 집중했다.

국어 과외를 하면서 나는 학습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분석 자료를 만들 때, 특히 해설지를 만들 때 한 지문에 들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이 걸렸다. 근데 과외하는 학생의 경우, 문제만 풀고 해설을 보고, 생각 없이, 혹은 어쩌면 단순 암기로 30분 정도 만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실제 학생들이 국어를 공부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설을 알차게 공부하는 것이라는 점, 나는 그 지점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 또는 컨텐츠의 목적은 무엇인가?

먼저, 해설을 통해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책의 구성을 많이 뒤돌아야 했으며, 현재도 자료를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 방법을 통해 개념과 문제풀이의 간극을 줄이려고 한다.

결국에는 개념을 통해 문제풀이를 하는 그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또 한 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내가 하는 방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애초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고과정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 방식에 대해서 취사선택하는, 좀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바란다.

세 번째로, 수능 국어에 필요한 '개념'을 알길 바란다.

이 개념이라는 것은 논리학에 내용이긴 하다. 물론 위 경험에서 논리학이 절대적이지 않다고는 말했지만, 결국 능력시험인 수능에 논리학 개념은 필수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리학 개념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글쓴이인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물론 다른 일도 하면서 살고 있기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박을 수도 없다.

혹시라도, 그 놈의 맞지도 않는 국어수업 내용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만 혹시라도, 이 컨텐츠를 통해 치유 받았으면 만족감이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를 통해

수정과 퇴고를 마친 책을 혹시 팔 수 있다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뭔가 재미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또 그것 나름대로 좋을 것 같다.

# 01 | 이 책 활용법

이 책은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취사 선택해주길 바란다)

나는 지문을 읽고, 그 다음 문제와 지문을 보면서 1:1 대응 및 추론을 한다. 결국 지문을 2번 읽고, 문제와 선지를 1번 읽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 1. 사용하는 기호에 대해

**Keyword** 지문을 읽거나 보기를 읽을 때 기억에 남기는 주제나 제재다.

- 지문을 읽을 때, 개념과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을 확인하다.
- 보기를 읽을 때, 개념이나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 및 '특정 단어'를 기억한다.

**REMARK** 지문을 읽거나 문제를 풀 때, 확인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한다.

- 지문의 경우, 적용된 '논리학, 기호학' 내용을 정리한다.
- 문제를 풀 때, 출제원리와 연관되어 있는 '논리학' 내용을 정리한다.

## 2. [들어가기 전]에 활용법

글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글을 구조화를 한다.

[들어가기 전에]는 문제를 풀기 전에 글을 읽으면서, 내가 구조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적힌 도구를 확인하고, 내가 구조화한 것을 통해 글의 구조를 시각화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조화해보자.

특정 내용에 형광펜을 치는 것

주요 내용

동일한 형광펜으로 반복되는 것

주요 내용의 (변주되는) 반복

동일한 색이지만,  
칠해져있지 않고 색 밑줄로 표시되는 것

주요 내용의 주변 내용

동일한 색이지만,  
칠해져있지 않고 색 글자로 표시되는 것

주요 내용의 반대되는 내용

다른 색 형광펜

또 다른 주요 내용

원 숫자 (① ② ③)

'순서'에 대한 표시

숫자 + 점 (1. 2. 3.),  
혹은 원 글자 (㉠ ㉡ ㉢)

'나열'에 대한 표시

# 01 ~ 03

## [들어가기 전에] 적용예제

### 들어가기 전에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Keyword 1** '어휘력, 읽기요소'와 '매튜효과'

'어휘력' 관련 학문에서 ㉠ - ㉡ - ㉢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읽기요소' 관련 학문에서 ㉠' - ㉡' - ㉢'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사회학에서 '매튜효과'를 통해 ㉠" - ㉡" - ㉢"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1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 ㉠-2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Keyword 2** '매튜효과'와 매튜효과로 설명되지 않는 것'

- ㉠-1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름
  -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름
- ㉠-2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Keyword 3** **매튜효과**로 설명하는 연구의 의미 (혹은 가치)

**REMARK 1** 부분과 전체 관계를 확인하자.

‘어휘력’은 ‘읽기요소’의 한 부분으로, 첫 문단에서 ‘읽기요소’를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으로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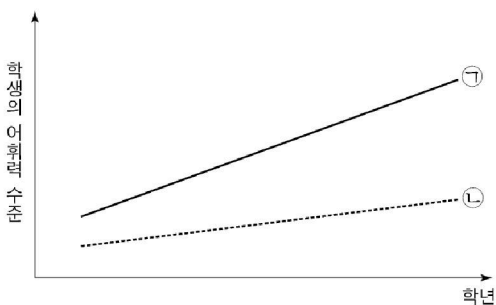
두 번째 문단에서 ‘어휘력’에 관련하여 정리했으며, 세 번째 문단에서 ‘읽기요소’로 확장했다.

이처럼 개념들 및 단어들 사이에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 전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 ②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추수록 더 잘 읽게 된다.
- ③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 ④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⑤ 읽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 2.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읽기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
- ②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의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③ ㉡은 학년이 올라가면 ㉠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지능의 차이 때문이다.
- ⑤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3. <보기>의 관점에서 ㉠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 ① 읽기 발달의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 ② 읽기 발달은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다.
-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 ④ 읽기 발달은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

### 3. [해설] 활용법

[해설]은 지문에서 선지의 근거를 일일이 표시했다.

일반적으로 내용일치 및 단순추론 문제는 1:1대응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1:1을 대응을 선지와 지문에 동일한 형광펜을 표시하여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형광펜 사용



동일 색으로 칠해진 선지의 근거 표시

두 줄 취소선



선지의 틀린 점을 표시

해당 콘텐츠 활용 방법

- 형광펜 된 지문의 앞뒤를 보면서 문맥을 확인하거나
- 그러나, 하지만과 같은 글의 구조 관련된 표현들을 확인하거나
- 선지와 지문에서의 근거 문장 사이의 차이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01 ~ 03

## 해설 적용예제

###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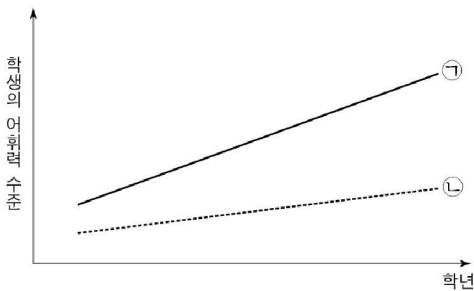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1번 문제의 '㉠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REMARK 2** 수식표현과 수식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2.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프 해석>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그래프 차이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두 그래프의 시작점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학년'(동일한 x좌표)에서 '학생의 어휘력 수준'이 다르다(다른 y좌표). 두 번째로는 두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르다.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그래프에서 해석하면, 동일 '학년' 변화폭에 대해, '학생의 어휘력 수준'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이다. 즉, ㉠어휘력이 높은 학생이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보다 동일 학년이 지난 동안 더 많은 어휘력을 상승시키며, 이와 같은 상승 차이가 두 학생간의 어휘력 격차로 이어진다.

**REMARK 2**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를 꼭 분석해보자.

- ① ㉠은 ㉡에 비해 읽기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
- ②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의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③ ㉡은 학년이 올라가면 ㉠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차능의 차이 때문이다.
- ⑤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

1번의 '②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추수록 더 잘 읽게 된다.'

1번의 '③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

그러나 ④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

1번의 '④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3. <보기>의 관점에서 ④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 ① 읽기 발달의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 ② 읽기 발달은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다.
-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 ④ 읽기 발달은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1번의 '⑤ 읽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 지문 마무리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조차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REMARK 3**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지문 전체를 읽어야 한다.

지문에 표시한 부분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다.

3문제에 불과하지만, 지문에서 거의 대부분의 부분이 표시되어 있다.

결국,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지문 전체를 읽어야 한다.